

## 일상의 경험을 통한 일화의 형성과 그 활용\*

- 정재륜(鄭載崙)의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을 중심으로

이강욱(영남대)

1. 머리말
2. 정재륜의 이야기 경험과 『공사견문록』
3. 이야기관의 활성화와 일화의 형성
4. 말하기·듣기·쓰기의 전개와 통합 양상
5. 일화를 통한 일상적 교훈의 생성과 사대부 가문 교육
6. 결론

### 1. 머리말

일화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실재한 인물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을 압축 제시하는 서사 갈래이다. 일화는 일상의 경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일화가 일상과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는 먼저 경험자 자신이 자기의 경험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것이다. 이때 일화는 경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다음으로 남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일화가 경험과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일상은 매일 되풀이되는 생활이다. 특별한 것을 일상적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도 일상 속에 들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일상은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일상은 반복적이고 진부하며 사소하지만, 일상 속에는 심오하고 특별한 의미가 깃들여져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sup>1)</sup>

일상이 매일 되풀이되는 것으로만 보인다면 그런 일상은 일화의 내용이

되기 어렵다. 일상의 경험으로써 일화의 내용을 구성해내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언제나 되풀이 되는 듯한 일상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주 특별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은 지금 이곳에서 각각의 개인이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사적이고 사소한 생활이다. 일상적 인간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기에 원칙적으로 과거나 미래를 지향하지 않는다. 특히 미래에 도래될 어떤 상황을 위하여 현재를 양보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 역사적 과거를 끌어와 현재를 억압하지도 않는다. 일상적 인간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고 느낄 따름이다. 그래서 구체적이다.

이 구체성을 넘어서는 것으로는 먼저 추상성을 들 수 있다. 추상성은 아직 지금 이곳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상상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념을 들 수 있다. 이념은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원동력이다. 이념의 이름으로 일상은 인정되거나 부정된다. 추상성이나 이념성은 일상을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상성을 말할 때 추상성이나 이념과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고 하겠다.

이 글은 이런 ‘일상’의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이 편찬한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sup>2)</sup>을 분석한다. 『공사견문록』에서 조선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이다.

\*\* 이 논문은 국문학회 2006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때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지정토론자로서 중요한 조언과 정보를 주신 성범중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1) 이와같은 일상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박재환 외 편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2, 24면 및 신중현, 한국소설의 일상성, 『동양학』 3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5면을 참조할 것.

2) 『공사견문록』은 ‘동평만록(東平漫錄)’, ‘동평기문(東平記聞)’, ‘한거만록(閑居漫錄)’,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 등으로 불려진다. 장서각본, 전형필본, 금서룡(今西龍)본, 영남대본 등의 완본이 있다. 영남대본은 『패림(裨林)』의 156책과 157책으로, 각 책이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각본은 상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영남대본의 화수는 대략 355화이고 장서각본의 화수는 357화이다. 영남대본과 장서각본은 수록 순서에 약간의 출입을 보인다. 장서각본은 강주진에 의해 번역되었다.(강주진 역, 『동평위 공사견문록』, 양영각, 1985) 강주진에 의하면, 『공사견문록』의 속편이 있는데 약 85화가 들어있다고 한다.(강주진, 위의 책, 352면)

동방미디어주식회사 한국학정보연구소가 온라인상에 올려놓은 『공사견문록』은 전집 171화, 후집 176화이고 서문과 발문도 있다.(KoreaA2Z.com) 이 사이트는 원문 사진도 제공하고 있어

시대 사대부의 일상적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경험 중 특별한 것이 어떻게 일화로 정착되는가를 살펴보겠다. 또 이렇게 형성된 일화가 다시 사대부의 일상에서 재 활용되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필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매우 요긴한 추동의 역할을 한 것이 이야기판이다. 사대부의 경험 방식 중 상당한 영역은 이야기하기와 듣기, 그리고 그것의 쓰기가 차지한다는 것을 밝혀 보겠다.

## 2. 정재륜의 이야기 경험과 『공사건문록』

정재륜은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1602-1673)의 아들로 태어나 좌의정 정치화(鄭致和 1609-1677)<sup>3)</sup>에게 입양되었다. 9살 되던 1656년(효종 7) 효종의 다섯째 딸 숙정공주(淑靜公主)와 혼인하여 동평위(東平尉)가 되었다. 1670년(현종 11) 사은정사로, 1705년에는 동지정사로, 1711년에는 동지 겸 사은정사로 청나라를 다녀왔다.

정재륜은 상층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 가문 안팎의 여러 사대부들과 교류하며 사대부로서의 삶을 영위했을 뿐만 아니라 부마가 되어 궁중 인물들과 과도 관계를 맺었다. 사대부 사회를 경험하면서도 궁중 생활을 경험한 것이다. 궁중 생활은 특히 국가를 대변하는 왕의 생활과 곧바로 연결되었다. 그는 9살 때부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등 네 왕을 부마의 자격으로 모셨다. 궁중 사람들의 일상은 사적이면서도 공적이었는데 정재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선친 정태화는 인조조인 1628년 별시문과에 급제하면서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1673년 벼슬살이에서 물러날 때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영의정만 다섯 번이나 역임했다. 특히 1636년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된 원수부의 종사관으로서 김자점(金自點)의 휘하에 들어가 병자호란을 맞이

하였으며 1637년에는 세자시강원 보덕으로 소현세자를 따라 심양으로 갔다. 돌아와서는 육조의 판서와 대사헌을 두루 거쳤는데 그때 소현세자의 죽음과 후계 문제로 조정이 심각하게 갈등하였다. 결국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가 사사되고 그 아들이 제주에 유배되면서 더 힘든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인조, 효종, 현종 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태화의 경험은 고스라니 아들 정재륜에게 전해졌다.

아울러 정태화의 증조부 정창연(鄭昌衍 1552-1636)의 경험이 정재륜에게 수용되었다. 정창연은 1579년(선조 12)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서울을 떠나자 호가(扈駕)하였고 1614년(광해군 6)에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었는데 이 무렵 영창대군의 사사와 폐모론이 일어나자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물러나 두문불출했다. 광해군의 비 유씨가 그의 생질녀였기 때문에 광해군의 옥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구해주게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좌의정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정재륜의 이력과 집안 선조들의 벼슬 경험이 일화의 형식으로 『공사건문록』에 적극 수용되었는데, 그것은 정재륜의 특별한 성향과도 관련된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재륜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기국(器局)이 준위(俊偉)하고 계책과 사려(思慮)가 있었으며 분에 넘치는 일체의 분화(紛華)한 풍습을 제거하고 검약(儉約)을 힘써 숭상하였다. 초옥(草屋)에서 따로 거처하면서 그 의복이 한결같이 검소하여 의젓하게 모든 부마에게 존경하고 법 받는 바 되었다. 4조(四朝)를 내리 섬겼고, 국조(國朝)의 고실(故實)을 두루 알아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여 의혹을 풀기도 하였고, 조정의 사대부(士大夫)들도 또한 의지하고 중히 여겼다. 그러나 처사(處事)가 괴상하여 교정(矯情)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으며, 남의 은미(隱微)한 일을 즐겨 살피는 것을 능사(能事)로 삼았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그의 병통으로 여겼다.<sup>4)</sup>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고는 접근이 용이한 이 자료를 활용했다. 앞으로 『공사건문록』의 작품 인용은 첫 몇 글자를 제목으로 삼고 전후집 및 회수를 제시한다.

3) 정태화의 동생으로 의령 남씨와 결혼했으나 아들을 얻지 못하여 형 태화의 막내 아들 정재륜을 입양했다. 1667년에 좌의정에 올랐다.

4) 器局俊偉 且有計慮 痛去禁鬻紛華之習 務尙儉約 別處草屋 被服一如寒素 綽然爲諸駙馬之矜式 歷事四朝 多識國朝故實 人多質問而決疑 朝士大夫 亦倚以爲重 然處事詭異 多近矯情 喜察人隱微事 以爲能 世以是病之(「동평위 정재륜의 줄기」, KoreaA2Z.com 『조선왕조실록』 경종 011 3/2/8(무오))

정재륜의 검소한 삶을 높이 평가하였다. 국조의 고실을 많이 알아 남의 의혹을 풀어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남의 은밀한 일을 살피기 좋아하는 것은 병통이라 비판하기도 하였다.<sup>5)</sup> 국조의 고실을 많이 아는 것과 남의 은밀한 일을 살피기 좋아하는 것은 얼핏 다른 영역일 듯하다. 진자가 국가의 공적 사항에 대한 독서 지식이라면 후자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견문 지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공사견문록』에 거듭 지적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조의 고실에 대한 그의 지식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획득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조의 고실’과 ‘남의 은밀한 일’은 정재륜의 왕성한 호기심과 관련된다. 그 호기심은 남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으려 한 것으로 이어졌다.

겸사이기는 하겠지만 정재륜은 스스로 ‘어려서부터 과분한 것을 탐해 선비의 학업에는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록한 문자가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sup>6)</sup>라고 하며 책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것이 자기의 장기가 아니라 했다. 반면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경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듣고자 하였다.<sup>7)</sup> 그런 듣기 취향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늙은 궁중 궁인들은 정재륜이 어려서 자기들 말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짐작하고는 아주 은밀한 궁내의 이야기들조차 거리낌 없이 하였는데, 정재륜은 그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듣고 기억해내었다.<sup>8)</sup> 특히 『공사견문록』에 실려 있는 광해군 관련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이들 궁녀들의 은밀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어린 정재륜은 노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고사(古事)’를 물었다.<sup>9)</sup> 『공사견문록』을 통독한 뒤의 소감을 바탕으로 했겠지만 정재륜의 일가 삼촌

인 정지현(鄭之賢)이 쓴 서문은 정재륜의 이런 성향을 요약하여 설명해준다.

이듬해에 혼례(婚禮)를 거행하고 여러 공자(公子)와 더불어 대궐에 출입하면서 임금이 하는 법을 보기도 하고 친히 가르침을 받았다. 노당(老璫 늙은 내시)과 노궁인(老宮人)이 하는 옛날 이야기를 곁에서 들었다. 또 조반(朝班)에 수행하여 선배(先輩)나 장로(長老)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여 조정의 반열에 자리한 지 50년 동안에 그 아름다운 말과 참다운 의논을 들은 것이 많았는데, 곁하여 가정(家庭)에서 들은 것까지 기록하여 두 책을 만들고 제목을 ‘공사견문(公私見聞)’이라 하였다. 비록 친한 종이나 계집의 말이라도 세상을 경계하는 데 관계가 있는 것이면 반드시 모두 기록하였다.<sup>10)</sup>

벼슬을 할 수 없는 부마로 일생을 보내야 했던 정재륜은 직접 경험의 영역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 묻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경험의 좁은 폭을 확장하려 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궁중이나 가정, 거리에는 정재륜의 이런 성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야기판이 성립되어 있었고 또 그 스스로 그 이야기판을 부추겼다. 또 확보한 이야기들을 일상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이렇게 나온 『공사견문록』을 ‘과정록(過庭錄)’의 전통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선친이 돌아간 뒤 아들이 선친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 과정록이라면, 정태화(혹은 정치화)-정재륜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면 『공사견문록』은 과정록이 된다. 반면 정재륜과 그 아들 정효선(鄭孝先)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효선은 아버지 정재륜의 언행을 스스로 기록하는 대신 아버지에게 ‘후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경계가 될 만한 것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여 가정에 전해줄 것’을 청했다.<sup>11)</sup> 정효선은 왜 아버지의 말씀과 언행을 스스로

5) 이런 비판이 다소 지나쳤다 여겨졌는지, 『경종수정실록』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조선왕조실록』경수 4권 3/2/8(무오) 참조할 것)

6) 幼叨禁闈 未嘗從事儒業 所記文字 未能通暢(『공사견문록』 서문)

7) 『공사견문록』이 명기한 제보자의 대부분은 늙었다. 늙었다는 것은 ①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점 ②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의미한다.

8) 余九歲時 初入大內 光海時老宮人尙多存者 相與話舊 而意余童騃 不解聽語 無所隱 諸人咸曰 光海主過於愼色 一月之間 幸後宮者 不過十五日(<여구세시(余九歲時)>(전집 37화))

9) 余自幼少時 逢老人 輒問古事(후집 136화)

10) 翌年 行昏禮 與諸公子出入禁闈 獲觀聖範 親承提耳之訓 傍聽老璫老宮人典故之談 又與先輩長老並肩聯席於朝行垂五十年 其間嘉言懿論者 既多 兼有家庭之聞 錄爲兩冊 目之以公私見聞 雖係賤隸婦之言 有關警世 則必皆收錄(鄭之賢의 서문)

11) 公之胤秀才 供役於筆研之間 秀才仍請於公 以可爲後人師範後人懲創者 隨思隨記 傳之家庭

기록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일까? 먼저 정효선에 의한 ‘과정록’의 저술은 정효선이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sup>12)</sup> 다음으로 아버지 정재륜의 언행이 정효선에 의해 ‘과정록’으로 재현되기보다는 할아버지 정태화(정치화 및 고조할아버지 정창연)의 언행이 아버지 정재륜에 의해 재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정재륜은 부마로서 살아가야 했기에 직접 한 경험보다는 각층의 사람들로 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한 간접 경험이 더 다양했다. 설사 그런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들이 정재륜의 입을 통하여 아들 정효선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정재륜의 귀를 통하여 포착된 것일진대 정효선의 붓보다는 정재륜의 붓이 더 정확하고도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재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이야기관의 활성화와 일화의 형성

『공사견문록』 소재 작품 중 편찬자 정재륜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것은 많지 않지만, <여어유시(余於幼時)>(전집 130화), <기해오월(己亥五月)>(전집 135화), <효묘우애(孝廟友愛)>(전집 137화), <현묘상송청사(顯廟嘗送淸使)>(전집 147화) 등은 거기에 해당한다. <여어유시>는 밥을 남겼다고 효종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어릴 적 이야기다. <기해오월>은 효종이 임종하는 모습을 그렸고, <효묘우애>는 우애를 몸소 실천하는 효종의 행동을 그렸다. <현묘상송청사>는 군졸의 실수로 다칠 뻔했던 현종이 그를 용서해주는 내용이다. 이들 이야기에서 정재륜은 스스로 그 장면들을 겪고 보았다는 것을 강조했다.<sup>13)</sup>

그 외 대부분의 작품들은 정재륜이 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공사견문록』에서 정재륜이 보여주는 세상은 이야기 속의 세상이다. 작품들의 끝이나 중간에 제보자를 명시하는 것도 이야기되었다는 사실을 중시했다는 증거다.

『공사견문록』에는 여러 개의 이야기관이 존재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먼저 정재륜의 가문 이야기관을 들 수 있다. 선친 정태화가 중심 이야기관이고 그를 통하여 증조의 이야기가 정리되고 전달되었다. 다음으로 궁중 이야기관이 성립되었다. 궁중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공유하는 이야기관이다. 궁인과 환관, 왕실 사람들이 구성원이다. 효종의 둘째 딸인 숙명공주(淑明公主)에게 장가들어 청평위(靑平尉)에 봉해진 심익현(沈益顯 1641-1683)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대부들이 구성하는 사대부 이야기관과 하층민들이 주 구성원이 된 민간 이야기관도 있다.

#### 3.1. 가문 이야기관

사대부 가문은 이야기를 통하여 가문의 역사와 선조의 정신을 전승하기도 한다. 이야기는 가문 선조 관련 사건과 선조들의 언행 등을 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가문의 역사와 정신을 가르치는 무형의 교과서인 셈이다.<sup>14)</sup>

『공사견문록』에는 먼저 ‘우리 집안 어른들[吾家宗丈]’<sup>15)</sup>이 들었다거나 집안에 전해지는 이야기라고<sup>16)</sup>하여 가문 이야기관을 막연히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인종재동궁(仁宗在東宮)>(전집 3화), <선조대왕지성사대(宣祖大王至誠事大)>(전집 18화), <선조조왕자(宣祖朝王子)>(전집 24화), <국구연흥김공(國舅延興金公)>(전집 74화), <여성위(礪城尉)>(후집 3화) 등이다.

인종(仁宗)이 동궁으로 있을 때다. 서연(書筵)을 열어 강관(講官)이 막 책을 펴고 글을 읽는데, 인종이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천천히 강관에게,  
“글 읽는 것을 중단하라.”

公乃爲之草(鄭行源의 발문)

12) 子孝先娶副率李萬徽女 早歿(李光佐 撰, <東平尉鄭載崙墓表>, 『동평위 공사견문록』, 강주진 역, 양영각, 1985, 349면.)

13) 此乃余終始目觀者(전집 135화); 此余及余內公主之所嘗親見者也(전집 136화); 臣以別雲劔入侍目觀之(전집 147화)

14) 이에 대해서는 이강옥, 사대부의 삶과 이야기 문화,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53-75면을 참조할 것.

15) 전집 41화

16) 家間流傳之言(후집 3화)

하고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후에 다시 나와 말하기를,  
“별이 소매 속으로 들어가 몹시 쏘았는데, 겨우 잡아 버렸다.”

하였다. 당시 인종은 어린 나이였는데 거룩하신 덕이 천성으로 이룩되어 침착하기가 이와 같았다. 내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들었다.<sup>17)</sup>

인종이 동궁에 있을 때는 정재륜의 증조부도 태어나기 전이다. 이 이야기는 몇 대조 이전 선조로부터 전승되었을 것이다. 소매 속에 별이 들어간 상황은 위급하다면 위급하다. 어린 인종은 침착하고도 품위 있게 사태를 잘 해결했다. 가문의 선조들이 가문 후손들에게 ‘어떤 위급한 사태라도 자기 신분의 품위를 지키며 침착하게 대처하면 잘 해결된다.’는 삶의 자세와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거듭 활용하였을 것이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들’었지만 분명히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집안의 특정 누구로부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어른들로부터 거듭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종의 지혜를 나타내는 일화(<세종조(世宗朝)>(전집 1화))의 형성 및 전승 과정과 비슷하다. 정재륜의 8대조인 정사(鄭賜)가 세종조에 벼슬을 하였기에 이 일화를 포착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유전되’어 ‘내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8)</sup> <선조대왕지성사대>는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선조(宣祖)와 그렇지 못한 조정 신하들을 대조시켰다. 이들 작품들은 가문 선조들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기에 담담하게 기술되었다.

반면 <여성위>는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의 말을 대부분 옮겨놓고 있다. 말을 삼가며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했던 궁중 사람들의 고민을 나타내었다. 이야기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운데, 그것은 정재륜의 전조모(前祖母)가 여성위의 증손(曾孫)인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구연홍김공>의 분위기는 이보다 더 무겁다. 김제남(金悌男)의 죽음과 부인 노씨의 제주 유배, 달성위(達城尉) 서경주의 의리, 그리고 인조반정으로 해배된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의 기이한 행태 등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긴장된 이야기가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김제남과 서경주의 가문에서 거듭 이야기되

었다는 점이다. 그 이야기가 정재륜 가문으로 전해졌다. 연결고리는 정재륜의 외조부다. 그는 김제남의 생질이었다. 외조부는 이 일련의 일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정재륜 가문에 전했다. 여기서 가문 이야기가 가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공유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증조부 정창연은 가문 이야기관에서 두드러진 이야기꾼으로 등장한다. 그는 <선묘시(宣廟時)>(전집 6화), <선조대왕(宣祖大王)>(전집 23화), <광해계축영창대군(光海癸丑永昌大君)>(전집 45화), <여증조수죽부군(余曾祖水竹府君)>(전집 66화) 등의 제보자이거나 등장인물이다. 정창연은 정재륜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므로 정창연의 이야기는 정태화나 다른 집안 선조들에 의해 정재륜에게 구연되었을 것이다. <선묘시>에서 정창연은 선조(宣祖)를 직접 모신 신하로서 선조의 검소한 생활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후손들에게 검소한 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sup>19)</sup> <선조대왕>은 명나라 장수와 선조의 대화를 담았다. 왜구를 물리쳐주려고 온 명나라 장수가 잠시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이 강물 속에 용이 숨어 있는데 우리 군교(軍校)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잡아낼 것이니 두고 보세요.” 하자 선조가 “용이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데 반드시 잡아서 무얼 하겠소.” 했다는 것이다.<sup>20)</sup> 이에 대해 정재륜은 ‘나의 선조가 호가(扈駕)하였기에 친히 그 일을 보았다. 고로 내가 가정에서 능히 들었다.’<sup>21)</sup>고 했다. 또 ‘대개 중국 사람은 요술을 잘하는 자가 많으므로 그 속임수에 넘어갈까 염려하였기 때문이고, 또 참으로 용을 잡아낸다 하더라도 처치하기가 곤란한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해설했다.<sup>22)</sup> 이것은 지나치게 압축된 원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다. 분위기가 느긋하고 어떤 교훈항을 무리하게 추출하지도 않았다. 명나라 장수의 허풍과 선조의 지혜를 ‘말에 의한 응수’로 써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여증조수죽부군>은 광해조 때 왕실 인척이 되어 위세를 부

17) 仁宗在東宮 開書筵 講官開卷進讀 忽玉色慘沮 徐命宮官曰 讀止 起而入內 少頃 復出曰 有蜂入袖 螫之甚急 纔已去之耳 仁宗方冲齡 而聖德天成雍容如此 余少聞於家庭 (전집 3화)

18) 八代祖直[提]學公 仕世宗朝 此說流傳於家庭 故余得聞之(전집 1화)

19) 余曾祖左相府君 親承上教 每言於家庭(전집 6화)

20) 時宣祖大王 嘗與征倭天將 泛舟漢江 天將曰 此有潛龍 軍校中有能捕之者 請觀之 宣廟曰 龍不爲害 何必捕之 天將笑而止(전집 23화)

21) 余先祖扈駕 親見其事 故余得聞於家庭 (같은 곳)

22) 蓋中國人多善幻術者 故慮或被其誑眩 且慮所捕雖眞 處之亦難也(같은 곳)

리던 유희분(柳希奮), 박승중(朴承宗)의 종과 첩 자식의 그릇된 행동을 보여 주고 비판하였다. 분수와 정도를 모르고 설치하는 인간 군상들의 행동을 통해 암울한 미래를 예견했으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광해계축영창대군>은 더욱 심각한 분위기다. 심희수가 증조부 정창연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 기한다. 정창연이 그 사연을 정태화에게 전했고 정태화가 다시 정재륜에게 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서술하지 않고 마치 정재륜 자신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목격한 듯 심희수의 말을 생생하게 읊었다. 심희수의 말<sup>23)</sup> 속에는 영창대군의 죽음과 관련된 사실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단과 소회까지 들어있다. 이야기꾼 심희수는 자기 이야기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했다. 정재륜은 그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옮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이야기 자리에 동참하여 직접 들은 듯 기술한 것이다.

가문 이야기관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구연한 사람은 선친 정태화이다. 그가 구연했다고 지적된 경우만 헤아려도 25화 이상이다. 표시는 없지만 정태화가 구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그보다 더 많다. 또 양아버지인 정치화(鄭致和)에 의해 구연된 것도 적지 않다.<sup>24)</sup>

그런데 가문 이야기관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특이하다. 이것은 『용재총화』나 『기재잡기』 등 조선 초·중기 잡록집의 경우와 상반된다. 조선 초중기 잡록집의 가문 이야기관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편찬자의 모친이나 할머니 등 여성층이었다. 『공사견문록』의 가문 이야기관에는 그런 여성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부분 여성들은 궁중 이야기관에 나타날 뿐이다. 정재륜의 가문 이야기관에 여성들이 동참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공사견문록』 이야기관에서의 여성 부재 현상은 『공사견문록』의 편찬 방침과 관련될 것이다. 보통 가문 여성들의 이야기는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

23) 主上宜抱置大君於膝上 嗚以果實曰 有賊欲害汝 我在 汝勿驚 如是 則可以慰先王在天之靈 而今反有此 不忍爲之事 必不得保我邦家矣 老臣恨不早死(전집 45화)

24) 『공사견문록』에서 생부 정태화는 ‘先君(翼憲公)’으로, 양부 정치화는 ‘先考左議政府君’으로 지칭되는데, 정치화에 의한 이야기는 <선묘조(宣廟朝)>(후집 16화), <허장적어여선고(許丈積於余先考)>(후집 17화), <김참찬수현(金參贊壽賢)>(후집 27화), <동악적거홍천(東岳謫居洪川)>(후집 63화), <여상백우선고(余嘗白于先考)>(후집 94화), <이판서경휘(李判書慶徽)>(후집 107화) 등이다.

경향이 강하다. 여성들은 친정과 시가 어른들의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구연한다. 특히 『용재총화』의 편찬자 성현의 외조모 동래 정씨에게서 그런 점이 두드러졌다.<sup>25)</sup> 『공사견문록』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하고 사적 영역도 공적 영역과 겹쳐질 수 있는 부분까지 수용했다. 그래서 사적이지만 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방침은 궁녀들의 이야기를 실은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궁녀들의 일상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걸쳐져 있기 때문이다.

선친이 들려준 이야기도 증조부의 이야기와 큰 차이가 없다. 역대 임금에 대한 것이 주류이고 뛰어난 사대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이다. <선조숭상검덕(宣祖崇尚儉德)>(전집 5화)는 선조 임금의 검소한 품성을 언급했는데, 선친은 그 이야기를 선조의 사위인 해송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증조부가 들려준 <선묘시(宣廟時)>(전집 6화)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만력임인(萬曆壬寅)>(전집 22화)은 인빈(仁嬪) 김씨(金氏)의 선한 마음가짐을 전했다. 선조가 계비를 간택하여 대례(大禮)를 행하는 날 다른 후궁들은 불만스런 표정이었으나, 인빈 김씨만은 언사와 기색이 편안하여 마치 자기에게 특별히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궁중 사람들이 모두들, “김빈(金嬪)은 반드시 후한 복을 누릴 사람이다.”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선친이 어렸을 때에 광해군의 장인인 유자신(柳自新)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녀는 증조부의 누님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증조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폐주광해비유씨(廢主光海妃柳氏)>(전집 27화)는 광해군의 비 유씨가 왕가의 며느리로서 얼마나 가슴조이고 살았는가를 암시한다. 그녀는 불도를 받들며 궁궐 안팎에다 불상을 모시고 축원을 했는데 그 축원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생에는 왕가의 며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 역시 선친이 국구(國舅) 집사람에게서 듣고 와서 이야기해준 것이라 하였다. <인조신상벌(仁祖愼賞罰)>(전집 75화)은 상벌에 신중했던 인조의 이야기다. 효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은 선친이 효종 대에 주로 벼슬을 했기 때문이다. <효묘인산기성(孝廟因山旣成)>(전집 123화), <효종무술

25) 이강옥, 앞의 논문, 54-59면.

추(孝宗戊戌秋)>(전집 139화), <효종무술(孝宗戊戌)(후집 51화) 등은 효종과 관련된 내용이며 선친의 뛰어난 감각과 혜안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박판서서(朴判書選)>(후집 45화)는 선친이 들려준 이야기 중 가장 잘 짜여진 감동적 일화다.

판서 박서(朴遜)는 나의 선군 익헌공(翼憲公)의 동갑 친구이다. 어릴 때에 어느 집안과 약혼을 하였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처녀가 심각한 병에 걸려 겨우 소생하였다. 처녀가 그 병 때문에 실명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당시 박공의 부친은 돌아가신 뒤라, 만형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곳으로 혼처를 구하려 하였다. 박공이 말하기를,

“않다가 눈이 먼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지 그 여자의 죄가 아닙니다. 소경인 아내와 함께 살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니, 만형이 기특하게 여겨 결혼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합근(合婚)할 때 보니 신부의 눈이 멀지 않았다. 원수 집에서 반간(反間)한 것이었다. 박공은 만력 임인년에 나서 효종 계사년에 졸하였는데, 나이가 52세였다.<sup>26)</sup>

선친의 친구 박서의 결혼담으로, 박서의 신의와 의리가 돋보인다. 그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은 것은 이야기 자체의 감동에서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 <김판서시양(金判書時讓)>(후집 69화), <동악적거홍천야(東岳謫居洪川也)>(후집 63화), <만력임인(萬曆壬寅)>(전집 22화) 등은 김시양과 이동악이라는 현명한 사대부의 독특한 행동과 철학을 보여준다.<sup>27)</sup>

26) 朴判書選 乃余先君翼憲公庚友也 兒時約婚于某處 未聘而處女得危病復生 有言其兩目因病失明者 時朴公春府不在世 伯氏告于慈闈 欲改求他婚 朴公曰 病盲天也 非其罪也 盲妻猶可同居 人無信不立 不可改也 伯氏奇其言 而許之 及合婚 目實不盲 蓋爲讎家反間也 朴公生于萬曆壬寅 卒于孝宗癸巳 壽五十二(후집 45)

27) 그 외 <여중씨우상공(余仲氏右相公)>(후집 119화)는 중형 정계승(鄭載嵩)이 제보한 것이다.

요컨대 정씨 가문 이야기판의 이야기들은 전체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 여성 이야기꾼을 배제함으로써 그런 성향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정치적 내용이 자손들을 위한 교훈을 형성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밀상적 내용의 이야기를 자손 교육을 위해 활용해간 것이 정씨 가문 이야기판의 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 3.2. 궁중 이야기판

궁중 이야기판에는 궁인, 내시, 부마를 비롯한 왕실 사람들이 동참한다. 이들은 궁중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으면서도 그 속에서의 경험 내용이 나라의 중차대한 일들과 관련되었다.

궁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야기꾼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임금과 관련된 특별한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진실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다. 특히 광해군 때의 궁인들은 정재륜이 부마가 된 시기에도 생존하고 있었는데 광해군 대의 일들을 소상히 기억하고 나름대로 그에 대한 생각을 고정시켜놓고 있었다.

먼저 궁인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

나는 아홉 살 때 처음으로 궁으로 들어갔는데, 광해군을 모셨던 늙은 궁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서로 옛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어린애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숨김없이 말들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광해주(光海主)가 여색을 지나치게 삼가해서 한 달 동안 후궁에 행차한 것이 15일도 안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잘못 알고 호색하다고 말하니, 너무나 원통하다.”

하였다.

옛적부터 태자와 모든 왕이 아보(阿保)의 손에서 길러졌으므로, 생명을 손상시키는 줄도 모르고 절제를 하지 않아 일찍 죽는 이가 많았다 하는데, 이는 어찌 이같은 말에 연유된 것이 아니겠는가?<sup>28)</sup>

여기서 궁녀들은 광해군이 호색 방탕했다는 소문이 부당하다는 점을 ‘한 달 동안 후궁에 행차한 것이 15일도 안 되었’다는 근거를 들어 입증하였다. <노궁비춘향(老宮婢春香)>(전집 39화)은 늙은 궁비의 목소리를 통하여 인조반정 날 광해군이 궁궐을 탈출하여 의관(醫官) 정남수(鄭柟壽)의 집으로 가는 과정을 박진감 나게 재구성했다. 궁인들의 이런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의 은밀한 부분을 정확하게 증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것은 궁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궁인들은 자기 경험 내용에 대해 일정한 이념적 평가도 하였다. <광해시궁인(光海時老宮人)>(전집 26화)에서 두 궁인은 풍년의 혜택을 성인은 적절하게 베풀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임금은 오히려 풍년 때문에 사치스런 마음을 일으켜 폐망에 이르게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광해군의 폐망을 설명하였다. 광해군이 폐망하게 된 것이 사치스런 마음을 갖게 된 때문이고 그 사치스런 마음은 풍년이 들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풍년은 광해군이 원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 궁인들의 정치적 감각은 풍년이 행운이 아니라 불행과 연결된다는 상식을 넘어서는 발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성들의 제한된 활동영역을 고려할 때 궁녀들의 이런 정치적 인식 능력은 특기할 만하다. <인조화가지일(仁祖化家之日)>(전집 79화)도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궁인들이 가졌던 의식적 긴장과 관련된다.

궁중의 환관들도 이야기꾼으로 등장한다. <광해시(光海時)>(전집 65화), <인조병술(仁祖丙戌)>(전집 88화), <여아시(余兒時)>(후집 116화) 등이다. 환관들은 궁중의 세세한 일들을 꾸러가는 자리에 있었기에 <광해시>에서 처럼 궁인이 한 이야기를 확인해주거나 <인조병술>처럼 임금과 세자 사이의 은밀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여준다. <여아시>는 집안에서조차 소외되는 어느 환관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28) 余九歲時 初入大內 光海時老宮人 尙多存者 相與話舊 而意余童騃 不解聽語 無所隱 諸人咸曰 光海主過於愼色 一月之間 幸後宮者 不過十五日 而世誤以好色稱之 其寃甚多 噫 自古太子諸王 生長阿保之手 不知傷生之道 全無限節 率多夭折者 安知其不由於此等之說耶(전집 37화)

정재륜은 어린 나이에 궁중으로 들어가 인평(麟坪)·숭선(崇善)·낙선(樂善) 등 왕자들, 익평(益平)·청평(靑平)·인평(寅平) 등 도위(都尉)들, 인평의 아들 복녕군(福寧君), 그리고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아들 경안군(慶安君) 등과 가까이 지내면서 효종의 훈계를 직접 받았다.<sup>29)</sup> <효종대왕성덕(孝宗大王聖德)>(전집 114화)은 “너희들이 왕실의 일가나 의빈으로서 처지가 서로 같으니, 힘써 서로 애호하며 화기를 잃지 말고 나의 돈독하는 뜻을 본받아라.”라는 효종의 훈화 말씀을 직접 듣고 항상 명심하며 살아왔음을 밝혔다. <효종대왕재봉림저(孝宗大王在鳳林邸)>(전집 140화)는 만년의 효종이 현종에게 은밀히 전한 이야기를 실었는데 그것은 부인 숙정공주가 옛되고 전한 것이다. <현묘조(顯廟朝)>(전집 156화)와 <효종조(孝宗朝)>(전집 164화)는 현종의 자애로운 품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제보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주나 다른 궁실 식구들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종실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종실들은 왕실의 권위를 유지해가는 세력으로서 왕실의 도덕성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종실로부터 들었다고 분명히 밝힌 작품은 <안공탄대(安公坦大)>(전집 20화)와 <오성군종실야(烏城君宗室也)>(후집 125화) 등이다. <안공탄대>는 선조의 외증조부이지만 철저히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간 안탄대에 대한 이야기다. ‘위로의 일탈’을 전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왕실은 물론 사대부의 귀감이 된다. <오성군종실야>는 그 반대인 ‘아래로의 일탈’을 한 오성군을 그린다. 오성군은 방탕하게 일생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륜은 그에게 “공이 호협하고 빛나간 행동을 한 것은 남에게 유혹되어 그랬습니까? 아니면 타고난 품성이 방탕하여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까?”라며 적극적으로 묻는다. 오성군은 답변으로 젊었을 적 자기가 방탕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진술한다. 오성군의 회한에 찬 마무리는, “연소 자제들은 나의 경우를 경계로 삼아 더불어 놀 사람을 삼가고 (방탕한 마음이) 싹트기 전에 금해야 할 것이오.”라는 것이다. 종실이 들려준 두 이야기는 일탈의 방향이 반대이지만 좁게는 왕실의 자제들에게, 넓게는 모든 젊은이에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가르치려 한 것이다.

29) 전집 114화.



궁중 이야기관에서 가장 돋보이는 제보자 중 한 사람이 정재륜의 동서인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이다. 그는 <순희세자빈(順懷世子嬪)>(전집 4화), <신판서정(申判書政)>(전집 44화), <임진지란(壬辰之亂)>(전집 71화), <인조개기후(仁祖改紀後)>(전집 80화), <현묘재춘궁시(顯廟在春宮時)>(전집 126화), <홍덕대원군(德興大院君)>(전집 129화) 등을 전했다. 그 이야기는 왕실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혹은 은밀하게 들은 것들로서 임금이나 왕세자의 탁월한 품성이나 지혜로운 통치와 관련된 것이 많고 <신판서정>처럼 광해군 말년의 암울한 세태를 경고하는 것도 있다. 심익현은 궁실 부마 중에서도 정재륜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궁실에서 듣고 알게 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사이였다. 특히 <임진지란>은 심익현이 부친 심지원(沈之源)으로부터 들은 것을 정재륜에게 전한 것이다.

요컨대 왕실 이야기관은 왕실 구성원이 입장을 변명하여주고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 이야기꾼들이 이야기 내용에 집착하는 성향도 강하다.

### 3.3. 사대부 이야기관

사대부 이야기관을 통하여 이야기 소재의 폭이 넓어졌다. 정재륜에게 이야기를 전한 사대부들은 이름이 명기되거나 ‘선배’, ‘장로(長老)’, ‘노재상(老宰相)’ 등으로 지칭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전집 중 17, 19, 29, 33, 36, 43, 46, 49, 53, 68, 74, 90, 92, 104화, 후집 중 2, 7, 24, 25, 73, 81, 129, 131, 133, 134, 141, 143, 150, 169, 170 화 등이다.

사대부 이야기관의 이야기꾼들은 이야기 대상에 대해 적절한 서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궁실 이야기관의 이야기꾼처럼 대상에 집착하여 비장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가령 왕실 이야기관에서 가장 비장한 분위기를 보이던 광해군 관련 일화들도 <선묘장택저(宣廟將擇儲)>(전집 17)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포착되었다. 여기서 광해는 “반찬을 만드는 것 중에 무엇이 제일인가?”라는 선조(宣祖)의 물음에 “소금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이유도 잘 설명하여 선조의 세자 능력 시험에 일단 합격한다. 다음으

로 “너희들이 부족해 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에 “다만 어머니 일찍 죽은 것이 애통합니다.”라 대답하여 선조를 흡족하게 함으로써 세자로 뽑혔다. 이렇듯 광해가 세자로 되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임금과 왕자와의 대화 자체도 경쾌하게 다루었다.

왕권의 변동을 다루면서도 그 자체보다는 그와 관련된 사대부들의 권력 부침과 운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지욕이일기은수(世之欲以一已恩讐)>(전집 19화)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오직 하늘의 힘에 달려 있을 듯한 사대부의 성패를 다루었다면, <심영상지원(沈領相之源)>(전집 90화)은 광해 때 수상 노릇을 한 박승종의 종말에 대해 다루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특별한 상황에서 모범적으로나 탁월하게, 혹은 부당하거나 비굴하게 살아간 사대부들의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바람직한 사대부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려 하였다. <계곡장공(谿谷張公)>(후집 81화)은 임금께 공경하듯 상관을 공경하라는 장유(張維)의 가르침을 담았다. <만사심공(晩沙沈公)>(후집 73화)에서 심공은 새 달력 수십 부를 몰래 가져가려다 궁지에 몰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남이 주는 것이 아니면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훈시한다. <이상국원(李相國澆)>(후집 24화)에서는 창녀와 가까이 지낸 무관을 배척하려는 이완에게 그 아버지 이수일(李守一)이 “내게 잘못이 없는 후에야 남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법이다. 너의 아버지 젊었을 적 그런 일이 있었다.”라며 자신의 과거 실수를 연상시켜 줌으로써 남을 거두어 용서하는 마음가짐이 소중하다는 훈계를 했다.

채정린(蔡廷麟)은 서파(庶派)로서 문관이다. 글을 잘하고 조심성이 있는 까닭에 재상들이 가상하게 여기고 천거해주어 낭천현감(狼川縣監)이 되었다. 흉년을 만나자 그의 적족(嫡族)으로 시골에서 궁하게 사는 이들이 줄지어 관청으로 와서 환곡을 달라 아우성치니, 싫어하거나 고달프게 여기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접대하였다. 마침내 관가 곡식 창고가 바닥나버려 파면되고 벌을 받았다. 그래도 말하기를,

“벼슬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문 친척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설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벼슬을 잃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가상하게 여겼다.<sup>30)</sup>

친척들과 백성들을 살리느라 자기 벼슬 잃는 상황도 가까이 받아들이는 채정린의 실천과 당당한 철학이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 상황에서 벼슬아치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효묘정유(孝廟丁酉)>(후집 25화), <역관김근행(譯官金謹行)>(후집 150화) 등은 사치를 경계했다. <구시공역액정(舊時供役掖庭)>(후집 169화)은 환관이나 궁첩과 결탁하는 것이 패망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송정병자(崇禎丙子)>(후집 133화)이나 <참봉송덕기(參奉宋德基)>(후집 141화), <인조무자(仁祖戊子)>(후집 129화) 등은 흥미소가 좀 더 가미된 일화를 제시하고서 교훈을 찾는다. <송정병자>는 술에 취해 실수로 자기 아이를 죽이고 발광하여 죽는 이야기고 <참봉송덕기>는 산사에서 독서를 하던 유생이 쇠고기 한 꼬치를 부처의 입에 문지르며 “너에게 한 꼬치 권한다.” 하였다가 그날 밤 가위 놀러 죽는 이야기다. <인조무자>는 바람피우던 기생에게 그 기둥서방이 추궁하자 칼로 자기 손가락을 찌으면서 결백을 맹세하는 이야기다. ‘술을 조심하라.’, ‘남을 모멸하는 짓을 함부로 하지 마라.’, ‘기생은 요물이니 조심하라.’ 등의 교훈을 추출하기는 하지만 일화 자체에 더 흥미가 끌리도록 되어 있다. <김판서신국(金判書薰國)>(후집 7화)은 벼슬아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듯 사대부 이야기관은 비교적 다양한 소재로써 사대부가 어떻게 자기 일상을 꾸려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양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여 뚜렷한 형식을 갖춘 일화를 만들고 거기에다 교훈함을 덧붙이는 것이 사대부 이야기관 이야기의 특징이라 하겠다.

### 3.4. 민간 이야기관

민간 이야기관에는 젊어서 남의 종노릇을 하다가 늙어 민간에서 살게 된 종들의 이야기가 많다. 전집의 14, 15, 32, 53 화, 후집의 140, 157, 158, 168, 173 화 등이 종들이 해준 이야기다. 종들은 자기가 섬긴 주인과 관련된 사건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감나게 구연한다. <선묘조국구(宣廟朝國舅)>(전집 14화)에서 김제남의 종은 영창대군의 죽음과 김씨 가문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에 언제나 울먹인다. <임진지란(壬辰之亂)>(전집 15화)에서 액정서 노비는 피란 가던 어가(御駕)를 따라갔는데 그 때 길가 백성들이 선조를 향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증언했다. <계해반정일(癸亥反正日)>(전집 54)에서 훈련원의 노졸(老卒)은 계해년(癸亥年) 반정하던 날의 권력 부침을 이렇게 증언한다.

계해반정일에 한찬남(韓贊男)<sup>31)</sup>이 결박되어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다가 목이 몹시 마르므로 수졸(守卒)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했지요. 그러자 수졸(守卒)들이 말했지요.

“대비(大妃)께서 서궁(西宮)에 계실 때 오늘 너보다 목이 더 마르셨다. 그때 네놈이 물 한 모금이라도 드렸느냐? 지금 내가 왜 너에게 물을 주겠느냐?”

한찬남이 다시는 물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지요.<sup>32)</sup>

인목대비와 한찬남의 운명 역전을 목마름이란 상황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냈다. 훈련원 노졸은 권력 부침의 무상함을 꿰뚫어보고서 이런 절묘한 상황을 포착하여 이야기했다 할 수 있겠다. <여어년소시(余於年少時)>(후집 140화)에서 김자점의 종은 김자점의 패망의 원인을 ‘명사들과 접촉하고 권세만을 좋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재륜은 종들의 현실 감각을 존중하여 받아들였다. 나아가 <유

30) 蔡廷獫庶派文官也 善文而能小心 故宰相嘉之 薦爲狼川縣監 值凶歎之年 其嫡族之窮居鄉曲 親行負戴者 絡繹官門 乞貸微責 廷獫不示厭苦之色 盡心接待 以至官庫板蕩 罷官受罪而乃曰 無官猶可生 而與嫡族不和 則何以立於世 以此失官 吾無所悔 人以是多之(후집 170화)

31) 한찬남(韓贊男 1560-1623)은 김제남의 처벌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이첨의 사주를 받아 해 주옥사를 일으켰다. 형조판서에까지 이르렀으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주살되었다.

32) 癸亥反正日 韓贊男被縛倒地 渴甚 求飲於守卒 卒曰 大妃在西宮 飢渴甚於汝今日 而汝曾不進一勺水 我何以救汝渴哉 贊男更不敢出言(전집 54화)

반궁노비(有泮宮奴婢)>(후집 168화)의 늙은 계집종은 “하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누가 했나? 내 보기에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당돌하게 하늘의 소행을 원망한다. 이 원망은 정치의 격변에 대한 계집종 나름의 통찰과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근년에 조정이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 하늘은 그 사람들(교만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거듭 내려 깨우치게 하여 그 인간됨됨이를 완성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부추겼다가는 마침내 벌을 내리니, 그 이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이런 하늘에 대해 내가 유감이 없을 수 없지요.”라는 계집종의 설명은 도도하면서도 핵심을 찌른 것이다. <조막동천애야(趙莫同賤隸也)>(후집 158화)에서도 조막동은 관노로 일생을 거의 다 보낸 사람인데, 벼슬아치들의 심리를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를 다스린 연후에야 아랫사람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진정 얼음이나 옥 같다면 우리들이 어찌 감히 민간의 것을 빼앗아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sup>33)</sup>라며 사대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종으로서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다.

<윤후길천애야(尹厚吉賤隸也)>(후집 157화)의 윤후길도 관가의 종이었는데, 다리에 흉측한 흉터가 있었다. 정재륜이 까닭을 물어 기어코 대답을 듣고자 하니 사연을 이야기해준다. 사헌부 관리가 윤후길에게 죄인을 잡아 오라 시켰다. 죄인이 은 30냥을 뇌물로 주기에 윤후길은 그 돈이면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을 챙겨 도망쳤다. 결국 체포되어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 풀려났다. 30냥 은은 약 비용으로 다 날려버렸다.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이에 대해 윤후길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마음을 먹음에 한번 올바름을 잃어버리면 이익을 구해도 도리어 해를 얻는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 사정은 어찌 천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겠습니까? 사대부들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sup>34)</sup>

윤후길은 종으로서 한 순간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 깨달음을

을 얻게 되었다. 나아가 그 깨달음을 보편적 교훈으로 확대했다. 그는 자기 경험을 근거로 삼아 사대부에게 교화를 베푸는 입장이 된 것이다.

미친한 신분의 사람이 자기 경험을 통해 각성하여 교훈적 진술을 하는 경우는 <인수우천(人雖愚賤)>(후집 172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려(二麗)는 서울의 창기인데 창기들이 결국 비참해지는 것은 미워진 얼굴 때문이 아니라 마음씀씀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창기들은 반드시 남자로 하여금 그 아내와의 화목함을 버리게 만든 뒤에야 이로움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매양 젊은 남자만 만나면 온갖 아양과 교태를 다 떨면서 그 뜻에 영합하여 그로 하여금 침혹(沈惑)하고 천성을 잃어 집안을 망치고 일을 잃어 버리게 만든 뒤에야 그만둡니다. 부부와 부자간에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모두 우리 창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기가 이와 같으니 우린들 어찌 끝이 좋겠습니까?<sup>35)</sup>

이러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창기 전체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정연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서술자도 이에 대하여 ‘사람이 비록 어리석고 미친 해도 자연스럽게 그 잘못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sup>36)</sup>고 인정하였고, 또 이려의 이런 경우를 확장하고 일반화시켜, ‘이것이 비록 천한 창기가 스스로 그 실상을 말한 것이나, 남을 해롭게 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경계가 될 만하다.’<sup>37)</sup>라고 확장된 교훈을 덧붙였다.

역관이나 의관, 아전이나 서리들도 많은 이야기를 구연했다. 역관의 이야기를 통하여 중국 사신의 행태가 소개되었다. <선묘조상방(宣廟朝尙方)>(전집 9화)에서는 역관은 초피(貂皮)를 둘러싸고 명나라 사신과 선조 임금 사이에 일어났던 우스운 상황을 전한다. <광해조천사(光海朝天使)>(전집 51화)에서는 허균과 이이첨에 대한 명나라 사신의 관상을 소개한다. <유길

35) 爲娼者 必使人舍其家室之好而後 己得其利 故每逢少年 輒百般獻媚 以迎其意 使之沈惑 喪性破家失業而後已 其夫婦父子之間 不得其道者 皆由於我 其害於人如是 則已亦安得善其終也(후집 172화)

36) 人雖愚賤亦有自然覺悟其非者(같은 곳)

37) 此雖賤娼自道其實之語 而可爲害人自利者之戒也(같은 곳)

33) 居官必先自律己然後能檢下 彼誠冰玉也 則吾輩安敢作孽民間乎(후집 158화)

34) 人之設心 一失其正 則求利得害 至於如此 奚但隸人哉 士大夫亦然矣(후집 157화)

유위(有金由滯)>(후집 165화)의 김유위는 이름난 의관으로서 재상의 집을 드나들다가 곧 모든 권력자와의 관계를 끊는다. 권세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그들이 망하면 그들과 관계를 맺던 사람들도 모두 망한다는 세상 흐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따라다니는 것은 ‘나의 분수를 지켜 내 몸을 편안하게 하며 천명을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sup>38)</sup> 했다. 의관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안분자족(安分自足)을 실천한 것이다.

아전이나 서리들은 하나같이 세태의 흐름을 관망하고 거기서 추출한 원리와 규범을 사대부들에게 들려준다. 사대부를 향한 규범적 목소리가 다른 어떤 이야기꾼의 목소리보다 더 강하고 당당하다. <유병조노리(有兵曹老吏)>(전집 42화), <여어금상(余於今上)>(후집 139화), <병조리지년로(兵曹吏之年老)>(후집 144화), <병조리김준(兵曹吏金峻)>(후집 161화), <근유서리(近有書吏)>(후집 167화), <유일정원노리(有一政院老吏)>(후집 175화) 등이다. <유병조노리>에서 병조의 늙은 아전 출신 김준은 강화로 쫓겨 가는 광해군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한 결과를 이야기해준다. 광해군이 실칠 때는 모두 다 그를 저주했지만 막상 쫓겨 갈 때는 행색이 참혹하여 무지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오직 훈신(勳臣) 중에는 광해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광해의 몰락을 통쾌하게 여겼다. 불쌍하다고 여긴 사람은 모두 좋은 벼슬을 지냈지만 통쾌하다고 한 사람은 모두 제 명에 죽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력의 부침에 따라 지조 없이 헤매던 당시 높은 사대부들의 작태를 담담하게 기술하고 비판하였다. <여어금상>에서 심기원을 수행하던 아전은 심기원의 패망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무인들이 설치하는 세상에 경종을 울렸다. <병조리지년로>는 이해 계산에 따라 명분을 내팽개치는 사대부 세계를 꼬집었다. <병조리김준>은 인조반정 이후 재상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앞날을 밝게 점쳤다. <근유서리>에서 늙은 서리는 말과 행동이 걸맞지 않은 사대부를 비판하면서 말과 행동을 삼가기를 충고한다. <유일정원노리>에서 늙은 아전은 과거 부정을 자행하던 시관의 앞날을 예언한다.

아전이나 서리는 사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사대부들과 거리를 두고

38) 不如守吾分安吾身 以待天命(후집 165화)

그들의 언행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대부 사회와 사대부 자신들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아가 신분은 낮지만 사대부들에게 따끔한 조언을 주기에 이르렀다.

그 외 <여자유소시(余自幼少時)>(후집 136화)는 벼슬아치들의 부회 근성을 기생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려주고, <진주목사(晉州牧使)>(후집 100화)는 ‘북쪽 지방 늙은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지방관의 일상을 그려준다.

요컨대 민간 이야기꾼은 개별 경험을 생생하게 담으면서도 상황에 부합하는 교훈함을 당당하게 제시하였다.

#### 4. 말하기·듣기·쓰기의 전개와 통합 양상

정재륜은 이상의 이야기관들에서 구연된 이야기들을 재구성하여 다시 썼다. 이야기관에서 이야기를 구연하고 듣는 것은 말하기와 듣기의 영역이고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다시 쓴 것은 쓰기의 영역이다. 말하기와 듣기, 쓰기가 따로 전개되면서도 결국 『공사견문록』으로 통합된 것이다.

##### 4.1. 말하기

말하기는 무엇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하는가를 지칭한다. 『공사견문록』의 말하기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몇 경우<sup>39)</sup>를 제외하고는 자기 경험의 중심에 이야기꾼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체로 이야기꾼은 바라보고 관찰하며 판단한다. 경험이 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전이 사대부를 바라보고, 궁인이 임금을 관찰하고, 종이 주인을 판단한다.

말하는 태도는 관조하며 성찰하는가, 동일시하며 집착하는가, 관심을 갖고 다만 전달하는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광해시노궁인(光海時老宮人)>

39) <여중씨(余仲氏)>(후집 119화), <윤후길천예야(尹厚吉賤隸也)>(후집 157화), <인수우천(人雖愚賤)>(후집 172화).

(전집 26화)의 늙은 궁인처럼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대상을 관조하고 성찰하는 이야기꾼이 있다. 주로 늙은 아전이나 서리, 종들이 남의 경험이나 행동을 전할 때 그런 태도를 가졌다. <윤후길천예야>(후집 157화), <여중씨(余仲氏)>(후집 119화)처럼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깨달은 바를 진술할 때도 그런 태도를 보였다. 자기 경험에 충실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반추한 결과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창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 말하기는 자기 성찰을 이끌 뿐만 아니라 성찰의 결과를 그럴 듯하게 정리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사대부 이야기관의 이야기꾼들도 이야기 대상에 대해 적절한 서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이야기 내용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야기 자체보다는 이야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교훈함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이야기꾼이 이야기 대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기 동일시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그런 말하기 태도는 궁중 이야기관에서 자주 나타났다.

인조가 반정하던 날, 궁인으로서의 직분을 맡아 일할 수 있는 자를 갑자기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광해의 옛 궁인 중에서 나이가 들고 죄가 없는 자를 내전에 들여보내 시중들게 하였다. 그 가운데 한보향(韓保香)이라는 궁인이 있었는데, 옛 주인을 잊지 못하여 때때로 몰래 슬피 우니, 옆에 있던 궁녀가 인렬왕후(仁烈王后)에게 밀고하기를,

“아무개가 옛 주인을 생각하고 있으니, 변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인렬왕후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한보향을 불러 위로해 주고 심지어 말하기를,

“국가의 흥망은 무상한 것이다. 우리 임금께서 하늘의 은총을 입어 비록 오늘날의 자리를 얻었지만 뒷날 광해만도 못한 실수가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너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으니 내 아들의 아보(阿保)가 될 수 있겠도다.”

하고 보모 상궁(保母尙宮)으로 삼고 호초(胡椒) 한 말을 주었다. 밀고한 궁인에게는 종아리를 치면서,

“오늘 한 너의 행동을 보니 뒷날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짐작하겠다.”

꾸중하고, 이어 여러 궁녀들을 타이르기를,

“너희들은 이 사람을 본받지 말라.”

하였다.

한씨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불안해하고 있던 옛 궁인들도 모두 마음을 놓고 감복하여 정성을 다 바치려 다짐했다.

나의 아내인 공주(公主)의 보모(保母) 김씨는 곧 광해(光海)를 시침(侍寢)한 사람이다. 그 일을 목격하였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sup>40)</sup>

여기서 이야기꾼은 숙정공주의 보모 김씨이다. 광해를 모시던 궁인들은 광해가 폐출되면서 함께 쫓겨날 궁지에 몰렸다. 그러다가 궁중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계속 궁중 일을 맡게 되었다. 그들을 인조의 궁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다. 한보향에 대한 무고도 그런 태도의 소산이다. 이런 이야기 내용에 대해 보모 김씨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 인물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 이야기꾼이 이야기 내용에 대해 긴밀하게 관련되어서 집착하는 경우다.

<선묘조국구(宣廟朝國舅)>(전집 14화)에서는 김제남의 종 한 사람이 김제남의 외손자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의 반응을 전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경사났다고 야단이었지만 김제남의 며느리 정씨(鄭氏)만은 근심하며 한탄했는데, 과연 그 뒤 영창대군은 원통하게 죽고 김씨 집안이 망했으니 정씨가 앞날을 정확하게 예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꾼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이 메어 말을 잘 이어가지 못했다. 이야기꾼은 자기가 섬겼던 김제남과 영창대군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초연하지 못했고 김씨 집안의 멸망을 자신의 멸망과 다름없이 절망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40) 仁祖化家之日 宮女之可堪職事者 倉卒無以備數 命光海舊宮人 年老無罪者 入內供奉 有韓氏名保香者 不能忘舊主 有時竊竊悲泣 同列者密告于仁烈王后曰 某也追思舊主 恐其有變也 后曰 此義人也 召韓慰籍甚至曰 國家興廢無常 吾王賴天之靈 雖得有今日 安知後日復不如光海之失之乎 爾之秉心如此 可以阿保吾子 命爲保母尙宮 且錫胡椒一斗 而引言者 撻之曰 觀汝今日之爲 可知他日之心 仍諭諸宮女曰 爾輩毋效此人 韓氏感激流涕 其舊人之不自安者 皆釋然歸服 務盡其誠 余內公主之保母金氏 卽光海朝進環人也 目見其事 常言之垂涕(전집 79화)

이렇듯 『공사견문록』에서 이야기꾼은 사건이 정치적 격동과 관련되고 또 이야기꾼 자신이 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이야기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 4.2. 듣기

듣기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즐기기 위해 소극적으로 듣는가, 아니면 은밀한 진술을 밝혀내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듣는가 등으로 나뉘질 것인데, 『공사견문록』에서는 후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정재륜은 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진지하게 들었다. 어떤 내용이면 이야기가 사실과 부합하여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려 하였다.

우선 제보자가 이야기 속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41)</sup> 이야기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가령 <여어금상(余於今上)>(후집 139)에서 제보자 손태웅(孫泰雄)은 심기원(沈器遠)을 모시던 아전이었기에 심기원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빠짐없이 목격한 존재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믿을만하다고 수용되었다.

이야기의 신빙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야기에 권위를 부여하려 하였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들은 뒤 믿을만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서 전 이야기의 사실성이나 진실성을 확인하려 하였다.<sup>42)</sup> 대체로 제보자가 그 이야기의 출처를 밝혀주지 않는 경우나 제보자의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다. 궁인으로부터 들은 <광해임술(光海壬戌)>(전집 38화), <인빈김씨(仁嬪金氏)>(전집 69화), <인조위소현세자(仁祖爲昭顯世子)>(전집 85화) 등이나, 아전으로부터 들은 병조리

(兵曹吏)>(후집 144)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광해임술>은 궁인이 정재륜에게 이야기해주었는데 정재륜은 그것을 허적(許積)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확인했다. 허적의 종매(從妹)가 광해군의 후궁이 되었기에 허적은 광해군 때 일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다 했다. <인빈김씨>도 정재륜이 궁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인빈(仁嬪) 김씨(金氏)의 겸손한 덕성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정재륜은 그 뒤 영의정 서문중(徐文重)으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다. 서문중은 인빈의 첫째 딸인 정신옹주(貞愼翁主)의 손자였다. <인조위소현세자>는 정재륜이 먼저 듣고 부친의 친구 유경소(柳景紹)에게 이야기 하니 그도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였다. <심영상지원(沈領相之源)>(전집 90)은 사대부의 이야기를 다른 사대부의 이야기로써 확인한 경우다.

이야기의 권위를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의 근본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순회세자빈(順懷世子嬪)>(전집 4화), <선조조상방(宣廟朝尙方)>(전집 9화), <선묘장택저(宣廟將擇譚)>(전집 17화), <광해계축(光海癸丑)>(전집 40화), <계축개옥(癸亥改玉)>(전집 43화), <광해조천사(光海朝天使)>(전집 51화), <임진지란(壬辰之亂)>(전집 71화), <인조개기(仁祖改紀)>(전집 80화), <현묘재춘궁시(顯廟在春宮時)>(전집 126화), <효종대왕(孝宗大王)>(전집 140화), <홍순언(洪純彦)>(후집 131화) 등이다.

<순회세자빈>의 이야기는 부마 심익현으로부터 들었는데 정재륜은 그 이야기의 전승 과정을 ‘심익현 → 선조조 궁인 → 순회세자(順懷世子)의 빈(嬪)의 시녀’로 역추적했다. <선조조상방>에서는 ‘역관의 늙은 아들 → 역관’으로, <선묘장택저>에서는 ‘송덕기->허균’으로, <광해계축>에서는 ‘정명공주(貞明公主)의 아들 홍만회(洪萬恢) → 정명공주’로, <계축개옥>에서는 ‘정재륜의 친구 → 이원로’로, <광해조천사>에서는 ‘역관의 아들 → 역관’으로, <인조개기>에서는 ‘부마 심익현 → 인평대군 → 효종’으로, <현묘재춘궁시>에서는 ‘심익현 → 현종 → 효종’으로, <효종대왕>에서는 ‘숙정공주 → 현종 → 효종’으로, <홍순언>에서는 ‘홍명하 → 장로’ 등의 단계로 뿌리를 찾아갔다.

한편 기록의 권위에 의존하기도 했다. <선묘조(宣廟朝)>(전집 7화), <폐

41) 余先祖扈 駕親見其事 故余得聞於家庭 (전집 23화)

42) ‘余嘗聞此言於老宮人 及聞徐領相文重之言 亦符前聞 徐公卽嬪第一女貞愼翁主之孫也’(전집 69); ‘余兒時得聞此說於老宮人 而後聞許及第積之所言 亦如此 蓋許之從妹 有爲光海後宮者 故詳知其時事也’(전집 38화); ‘余嘗聞此說於老宮人 告諸先友柳丈景紹 則柳丈曰 我亦曾聞此言 而其處子姓權云’(전집 85화); ‘余與金參判始振伴直總府時 修撰沈粹 翰林崔後尙 入直闕中 來見金公 言及此事 金公之論亦與沈公同’(전집 90화); ‘鄭僉知之賢 鄭宣傳官之相 趙知禮門衛 趙進士邦微 親聞吏言 爲余言之如是此 與某宰及掖庭人所遭事相類 故附錄于下 以爲後人或’(후집 144화)

세자(廢世子)>(전집 29화), <유장로(有長老)>(전집 36화), <계해사월(癸亥四月)>(전집 92) 등인데, <선묘조>에서는 정재륜이 ‘선배’들로부터 들었다가 인흥군(仁興君)이 편찬한 『월창야화(月窓夜話)』에서 확인하였다. 인흥군은 선조의 왕자이기 때문에 선조와 관련된 이 이야기에서는 완전한 권위를 갖춘 사람이다. <폐세자>에서는 이야기꾼인 유씨 노인이 그 선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장로>에서는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계해사월>에서는 광해군의 ‘묘표(墓表)’ 기록을 통하여 이야기의 신빙성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정재륜은 다양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되, 그 이야기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적극적이고 신중한 듣기 태도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공통된 것이라는 점을 조정의 의사 집행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사태를 해결하는 근거 자료로서 떠도는 이야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태종 9년 기록<sup>43)</sup>에는 백성들의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세자가 임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임금이 일단 그 이야기의 출처를 확인하라고 명한다. 세자는 이야기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실패하는데 그래서 이야기는 정책 입안을 위한 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 영조도 효열(孝烈)을 표창하기 위한 초계(抄啓)를 읽을 때마다 ‘얼음을 깨서 잉어를 잡았다거나 거울에 죽순이 돌아났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릴 정도였다.<sup>44)</sup> 이야기의 근거와 신빙성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역대 임금들의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사대부들의 끊임없는 상소 때문이었다. 가령 정조 때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홍억(洪億)은 임금을 옆에서 시봉하는 사람을 잘 가려서 ‘그들로 하여금 감히...민간의 저속한 이야기로...(임금의) 시청(視聽)을 현란시키지 못하게’하

43) ‘임금이 연침(燕寢)에서 세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 하니, 세자가 자리를 피하며, “신이 듣자오니, 백성들 가운데 굶주림으로 인하여 나물을 캐다가 죽은 자도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놀라서, “네가 들은 것을 자세히 물어보고 오너라.” 하니, 세자가 환관(宦官)의 무리를 불러 물으니 모두, “길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침전에서 세자와 굶주려 죽는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017 09/04#27)

44) <효열 증직 대상자 30명에 대해 복호만 허락하고, 구례를 복구하게 하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046 21/2/10

라고 강력하게 상소하였다.<sup>45)</sup>

정재륜도 이런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정재륜은 세간과 궁중에서 전승되던 온갖 이야기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야기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것은 다른 사대부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다는 소극적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다. 스스로 들은 이야기에 대해 교훈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하였다. 그런 작업은 쓰기 단계에까지 이어졌다.

이야기를 듣되, 그 이야기와 실제 현실의 관계를 우선 생각했다는 점에서 정재륜은 이야기 자체의 독립성을 완전하게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이야기만으로 즐기지는 않은 것이다. 그보다는 이야기를 사실과 관련시키려 애썼고, 그런 신빙성을 바탕으로 하여 교훈을 추출하려 하였다.

#### 4.3. 쓰기

정재륜은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아들의 요청에서 비롯하기는 했지만 이야기의 기록 과정에서 정재륜이 적극 개입한 것을 보면 그 스스로도 기록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변형시켰고 거기다 나름대로의 감상과 생각을 덧붙이며 적극적으로 썼다.

이야기꾼이 일화를 구연하면서 교술적 진술을 이끌어내었다면, 정재륜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일화와 교술적 진술을 확장하였다. 일화를 중심에 둔 말하기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글쓰기의 모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45) <판의금부사 홍억이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044 20/03/06

(1) 기본 구조

[작품 1]

- ① 송정(崇禎) 병자년 난리가 나기 전 호조 서리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70이 가까워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아서 매우 사랑하였다. 언제나 밖에 나가서 과일이나 떡 같은 것을 얻으면 꼭 소매 속에 넣어 와서 아들에게 주었다. 하루는 술에 취하여 돌아와 누웠는데 아이가 그의 소매를 더듬으며 먹을 것을 찾았다. 취한 서리는 흰 개가 자기를 물려고 한다 착각하고는 벽 위에 있던 칼을 빼어 마구 찔렀다. 술이 깨어서 그 광경을 보고는 그만 발광하여 죽었다 한다.
- ② 술을 즐기는 사람은 조심할 줄을 알아야 마땅하다.
- ③ 액정서(掖庭署) 사람 김대규(金大奎)가 전에 눈으로 본 것을 나에게 말한 것이다.<sup>46)</sup>

[작품 2]

- ① 판서 김시양(金時讓)이 왕명으로 영남을 순찰할 때에 어떤 고을이 착오로 날짜를 어겼다. 향소(鄕所)를 잡아다가 형틀에 매고 장차 불기를 치려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밖으로부터 뛰어들어와 자기 몸으로 향소의 불기를 막아주려 하였다. 판서의 사위 이도장(李道長)이었다. 묶여 있던 향소는 그의 숙부였다. 그러자 판서가 꾸짖기를,  
“내가 사위 하나로 인하여 나라의 법을 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나졸에게 명하여 밀어 내치고 곤장을 쳤다.
- ② 판서가 사사로운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한다.
- ③ 이도장(李道長)은 일찍이 판서를 지낸 이원정(李元禎)과 대사헌을 지낸 이원록(李元祿)의 부친으로서, 한림과 옥당을 거쳐 이조 좌랑이 되었으며, 당

46) 崇禎丙子難前 有爲戶曹書吏者 垂老始生一子 奇愛之 每出外 得果實餅之類 則輒袖歸以遺之 一日醉歸 兒探其袖以索 而吏醉以爲白犬將噬已 拔壁上劍 亂斫之 及醒視之 遂發狂死 嗜酒者 宜知戒矣 掖庭人金大奎 嘗目觀之 爲余言(후집 133화)

상관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다. 나의 선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sup>47)</sup>

①은 일화를 제시하거나 일화를 제시한 뒤 그에 대한 등장인물의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그 말은 일화의 교훈을 압축하여 제시한다. ②는 앞 일화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이다. ③은 제보자를 밝힌 것이다. 제보자의 존재는 먼저 이야기에 권위를 부여한다. 그렇게 확보된 이야기의 권위는 독자들에게 교육적 권위로 전환된다. [작품 1]에서 액정서 김대규가 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했기에 독자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럼으로써 사건이 주는 경각심이 더 강렬해진다. [작품 2]는 선친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럴진대 특히 후손 독자들은 선조가 내려주신 훈화의 말씀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삼단계가 『공사견문록』 소재 작품들의 기본 구조라 할 수 있다. 이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응용이 이루어진다. 쓰기 과정의 응용은 일화의 성격이나 기록자의 의도에 따른다.

(2) 일화들의 결합에 의한 의미의 보편화

[작품 3]

- ① 나의 증조(曾祖) 수죽부군(水竹府君)께서는 성 남쪽 밖에 별장을 두었는데, 수풀과 연못은 옛 부터 전해온 것이다. 광해 시절 증조부께서는 한양에서 계시기를 좋아하지 않아 간혹 거기로 가시기도 하였다.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꽃이 필 때마다 비단 수를 놓은 것처럼 화사하였다. 동쪽 담 쪽으로 증조부의 누이<sup>48)</sup>의 아들 급제(及第) 유희분(柳希奮)의 별장이 있어 수풀이 서

47) 金判書時讓 奉命巡嶺南 有一邑稽誤失期 拏致鄕所 縛於刑板 露臂將杖之 忽有自外突入者 以身加於鄕所臂上 乃判書女婿李道長 而所縛之人即李之叔父也 判書叱之曰 吾豈因一女婿而廢國法乎 命羅卒推出而仍杖之 判書之不顧私如此云 李即曾經判書元楨大憲元祿之父 而官經翰苑玉堂吏曹郎 未陞緋玉而歿 余先君嘗言之(후집 69)

48) 증조부의 누이는 유자신(柳自新 1541-1612)의 부인이 되었다. 이들의 셋째딸이 광해군의 비 유씨였다. 인조반정으로 유자신은 관작과 봉호가 추탈되었고, 아들 희분(希奮), 희발(希發), 희량(希亮) 등은 처형, 유배되었다.



로 이어졌다. 하루는 유희분의 종이 담을 넘어 들어와서 꽃나무를 훔쳐가 유희분의 동산에 심으려 하였다. 증조부의 종들이 놀라 증조부께 달려가 여쭙니, 증조부께서 말씀하기를,

“희분이 어찌 그 종을 시켜서 우리 동산의 꽃나무를 옮겨 심게 하였겠는가? 다만 가득차기가 극에 이르면 사변(事變)이 일어나니 종의 무리가 (주인의) 권세를 믿고 이처럼 나쁜 짓을 일삼으니, 이는 조물주가 그렇게 시켜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한이 차면 저절로 그치게 될 것이니, 굳이 금할 필요가 있는가? 가져가는대로 내버려두어라.”

하였다. 과연 얼마 안 되어 그 집이 망했다.

② 같은 시기에 박승중(朴承宗)이 영의정으로서 국정을 담당하였고, 또 왕실과 혼인을 맺어 부귀가 극에 이르렀다. 그 첩의 아들이 어린아이로서 수락산으로 놀러 갔는데, 의복과 타는 말의 화려함이 산골짜기를 빛나게 하였다. 산벼랑에 있는 명마구리(胡燕) 둥지를 보고 장난삼아 울산 바다에서 잡은 반 건조 전복(半乾鮑魚)을 그 둥지에 던져주고 촌사람들이 다투어 주워가는 모양을 구경하였다. 울산 전복은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서 나는 산물 중 가장 진귀한 것으로 곤궁한 선비나 가난한 백성들은 구경하기조차 쉽지 않은 것인데, 그는 기와부스리기 같이 여겼다. 아끼는 바가 없고 교만하고 사치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③ 두 가지 일은 비록 차이는 있지만 큰 기한이 임박하였는데도 흥미하여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른다는 점에서는 한가지라 하겠다.<sup>49)</sup>

먼저 ①은 증조부의 경험담으로써 증조부에 의해 이야기되어 가문 이야기관에서 전승되다가 정재륜에게 수용되었다. ②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지

49) 余曾祖水竹府君 有別墅在南郭外 卽林塘舊業也 府君在光海朝 不樂在京時 或往居焉 多植花樹 每花發爛若錦繡 府君妹子柳文昌希奮 置別墅於東墻之外 園林相連 一日柳奴踰墻而入 偷斷花樹 將移植於柳園 奴輩駭而奔告 府君曰 希奮豈使其奴斷移吾園之木也 但其盈滿已極 事變將至 故奴輩之怙勢作孽如此 有似造物使之不得自由者 限滿則自止 何必禁之 任其取去也 未幾其家果敗 同時朴承宗 以首相當國 且連姻王室 富豪極 一時其妻子 以童艸 往遊於水落山 衣服騎乘輝映岩谷 見胡燕作巢於山崖 以蔚山半乾鮑魚 戲擲其巢 以觀村人爭拾之狀 蔚山鮑魚 我東海味之最珍者也 窮儒寒生得見猶不易 而彼則視同瓦礫 無所惜 驕侈如此 安得不亡乎 二事雖殊 大限將至 迷不自省 同一致也(전집 66화)

만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로 유사한 행동을 보여주고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증조부에 의해 구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재륜은 두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했다. ①에서 증조부의 예언은 적중했음을 보여주었다. 증조부는 세상일에서 가득차면 기운다는 진리를 믿었다. 그리고 유희분 종들의 교만한 행동을 보고서 그 가문의 앞날을 예견하였다. 정재륜은 그런 증조부의 확신에 찬 통찰을 독자에게 보여주되 증조부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었다. “종의 무리가 (주인의) 권세를 믿고 이처럼 나쁜 짓을 일삼으니, 이는 조물주가 그렇게 시켜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한이 차면 저절로 그치게 될 것이니, 굳이 금할 필요가 있는가? 가져가는대로 내버려두어라.”라는 증조부의 말은 서술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과연 그 집은 망했다.’<sup>50)</sup>라는 마무리 진술은 증조부 발언의 정당성을 한 번 더 부각시켰다. ②는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승중의 첩 자식의 사치스런 행동은 유희분의 종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 둘 다 주인과 아버지의 권세를 염두에 둔 분에 넘치는 행동을 했다. 그런데 ②는 시중 서술자의 목소리로 서술되었다. 그에 대한 평가도 서술자의 평가이다. 서술자의 이런 목소리는 ①의 증조부의 목소리와 그 철학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나란히 배치된 두 이야기를 통해 세계관이 증조부에서 손자로 계승되는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가문 이야기관에서 따로 존재했을 법한 이 두 이야기가 글쓰기 단계에서 같은 공간에 배치됨으로써 가문의 세대 간 이념 형성의 통로를 구성해낸 것이라 하겠다. ③은 ①과 ②를 묶어 준다. 그럼으로써 세대 간 이념 형성의 통로를 입증했다. ‘큰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흥미하여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은근히 광해군 시절의 정치상황이라는 대단히 큰 대상을 지칭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그만큼 교훈의 일반화 정도가 커졌다.

‘일화의 제시’ → ‘등장인물의 말에 의한 평가’ → ‘제2일화의 제시’ → ‘서술자의 평가’ → ‘의미의 일반화’ 순으로 나아간 쓰기 방식은 『공사견문록』이 추구하는 세대간 교훈의 전수라는 목표와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의 일화를 바탕으로 하는 사대부 글쓰기의

50) 未幾其家果敗(같은 곳)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메타화

[작품 4]

❶ 동악(東岳)이 홍천에 귀양살이할 때 이웃에 천한 계집종으로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다.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이가 30이 지나도록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하였다. 그 때에 동악에게 글을 배우는 문하생이 10명쯤 있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음탕한 것을 좋아하는 무인(武人)을 속여 계집종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하여 하룻밤 데리고 자게 하였다. 이튿날 동악이 듣고 그 문하생을 책망하기를,

“일은 마땅히 바른 대로 알려져 취하고 버리는 것은 그에게 맡겨야 할 것인데 너는 그녀가 소경이라는 것을 숨기고 데리고 자게 했으니 자못 정직하지 못한 데 가깝다. 이런 버릇은 기를 수 없다.”

❷ 이렇게 가르치고 꾸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❸ 옛 사람은 비록 조그마한 일에서라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❹ 나의 선고(先考) 좌의정 부군(左議政府君)이 동악(東岳)에게서 글을 배울 때에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시고 후생(後生)에게 말씀하셔서 법칙으로 삼았다.<sup>51)</sup>

❶은 서당 주변의 일상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다. 동악은 거기서 교

훈을 추출했다. 그 교훈이 동악이라는 등장인물의 말 속에 압축되어 있다. ❷는 그에 이어진 진술로서 이런 교훈을 담은 일화가 동악에 의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한다. ❸은 그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이다. 서술자의 입장에서 교훈을 생성해낸 결과이기도 하다. ❹는 제보자를 밝히는 대목이면서도 제보자인 부친이 동악의 교수 방식을 계승했음을 밝혀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사대부 교육 현장에서 일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그 일화가 어떻게 계승 확대 활용되는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일화의 제시 → 등장인물의 말에 의한 평가(교훈의 형성) → 서술자의 평가 → 제2 등장인물에 의한 재활용’이 된다. 선친의 교훈 속에 동악의 교훈이 녹아 들어 간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정재륜이 글을 쓰면서 ❹에서처럼 선친의 교훈을 언급하고 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동악의 교훈을 메타적으로 활용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글쓰기에서 동악 관련 일화를 메타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재륜이 경험한 사건의 차례로 보면, 선친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먼저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동악의 일화가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정재륜은 그 일차 구연과 재구성의 순서를 무시하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재배치하였다. 이런 재구성이 가능했던 것은 가문이나 왕실에서 메타적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메타적 교육 방식이 메타적 글쓰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전개과정은 일화가 교육적으로 확장 활용되어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5. 일화를 통한 일상적 교훈의 생성과 사대부 가문 교육

일화 속의 등장인물은 일상에서 독특한 경험을 한다. 그것을 ‘일탈 경험’이라 부른다. 일탈의 방향이 긍정적인 쪽이든 부정적인 쪽이든 등장인물이 그 경험에서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자극과 충격이다. 이 자극과 충격이 등장인물로 하여금 일탈 경험을 되새기고 되돌아보게 만든다. 마침내 뭔가를 깨닫고 달라진다. 자기 경험에서 우러난 삶의 지혜나 교훈이 스스로를 달라지

51) 東岳謫居洪川也 隣有賤婢之盲者 常語人曰 年過三十 尙不知陰陽之理 若伴男子 得過一夜則死無所恨矣 時李公學徒在門下者 近十人 中有少年子 誑武人之喜淫者 諱其盲而勸之宿 翌日東岳聞而責其人曰 事當直告 任其取舍 而今汝諱其病 而使之同宿 頗近不直 此習不可長也 誨責不已 古人雖於微細事 處之以正者 如此 余先考左議政府君 受學於東岳 聽其教語 言於後生 俾爲柯則 (후집 63화)

게 만들었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부터 삶의 지혜나 교훈을 추출할 수 있기도 하였다.

정재륜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데 관심이 많았다. 특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스스로 달라져 있는 이야기꾼을 만났을 때마다 이야기판을 만들어서 그 내력을 들었다. 정재륜이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판에서 구연되고 전승되면서 교육적으로 활용되던 것이었다. 정재륜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뒤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였다. 말하기와 듣기 차원의 교육이 이뤄진 것이다.

『공사견문록』은 이런 과정과 결과의 산물이다. 『공사견문록』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말하기 → 듣기 → 쓰기’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 과정은 사대부 사회나 궁실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교육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식들이나 아랫사람(혹은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이다. 반면 남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거나 엿들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 일군의 이야기는 어느 한 이야기판에서 구연되면서 탁월한 전승력을 얻게 되어 다른 이야기판으로 옮겨져 거듭 구연된다. 이야기 내용과 구조 속에 이미 교훈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수행되었다.

먼저 궁중 교육의 양상을 살펴보자.

인조가 반정한 후에 국구(國舅)인 서평(西平) 한준겸(韓浚謙)에게 글을 보내어 궁궐에서 먼저 할 바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광해 때에는 은상(恩賞)이 지나쳐서 나라를 잃게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그 일을 바로잡아서 종실·척리(戚里)와 귀빈(貴嬪)·근시(近侍)들로 하여금 모두 분수를 알게 하시고 하사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정해진 규정을 적용하여 요행의 길을 막아야만 은총을 받고 게을러지는 폐단이 없어져 나라가 오래도록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인조가 크게 옳게 여겨서 무릇 베풀어줌이 공평하게 되도록 힘썼다.

이는 모두 한공의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된 것이라 한다. 효종이 항상 이 사정을 인평대군(麟坪大君 인조의 셋째 아들, 효종의 동생)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청평(靑平) 심도위(沈都尉)가 곁에 모시고 있다가 듣고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주었다.<sup>52)</sup>

여기서 한준겸의 한 마디 말은 ‘말의 일탈’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말 속에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전망이 녹아들어 있다. 한준겸의 말 한 마디가 인조의 행동을 변화시켰다. 문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인조는 아들 효종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그때 인조는 한준겸의 말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해준 한준겸의 인물됨됨이와 그 말을 실천하여 나라가 달라진 양상까지 포괄하여 효종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효종은 다시 동생 인평대군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 이상은 일화 구연을 통한 의도적인 교육의 과정이다. 때마침 그걸 심익현이 엿들었다. 심익현이 그것을 정재륜에게 이야기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이 확장된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정재륜이 자기 가문으로 돌아와 아들 정효선을 비롯한 가문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비슷한 과정이 <현묘재춘궁시(顯廟在春宮時)>(전집 126)와 <효종대왕(孝宗大王)>(전집 140)에서도 나타난다. <현묘재춘궁시>에서는 효종이 아들 현종에게 인종, 광해, 중종 대 신하들의 언행을 예로 들면서 ‘사람을 볼 때는 다만 그 마음가짐이 사특한가 올바른가만을 살필 것이고 그 행적에 집착하여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시한다. 효종이 현종에게 세자 교육용으로 해주던 이야기를 부마 심익현이 듣고 정재륜에게 전하였다. <효종대왕>에서는 효종이 세자로 책봉되기 직전 행실을 잘못 했던 식객에 대해 현종에게 이야기해줌으로써 그를 경계하라는 충고를 준다. 이 이야기를 숙정공주가 듣고 정재륜에게 전했다.

이렇듯 일화의 이야기하기를 통한 궁중의 교육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지

52) 仁祖改紀後 貽書國舅韓西平浚謙 問宮闈間所當先者 公對曰 光海時恩賞過濫 以致失國 今宜一反其事 使宗戚貴近 皆知分限 至於賜與之物 亦皆定式 無開僥倖之路 然後可無恩竭致慢之弊 而國家亦得久安矣 仁祖大以爲然 凡所施與 務得其中 此皆韓公一言之助云 孝廟常以此語麟坪大君 靑平沈都尉 侍傍 聞之 爲余言 如是(전집 80화)

만 우연한 기회에 그 이야기가 궁실의 다른 사람에게 포착됨으로써 구연과 교육의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정재륜이 끊임없이 선친이나 다른 사대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는 사례도 그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다. 가문 이야기관이나 사대부 이야기관에서도 왕실 이야기관 못지않게 은밀하지만 적극적으로 일화 구연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정재륜은 민간 이야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폐쇄된 왕실 이야기관과 가문 이야기관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내가 숙종(肅宗) 을묘년(乙卯年 1675, 숙종 원년) 간에 온천(溫泉)에 목욕하러 가다가 촌가(村家)에 들러 말 먹이를 주었다. 집주인 손태웅(孫泰雄)은 나이가 80세가 넘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전에 심기원(沈器遠)<sup>53)</sup>을 모시는 아전이었지요.” 하였다. 내가 묻기를,

“그럼 심기원(沈器遠)이 패망하기 전에 그렇게 될 줄 알았소?”

하니, 손태웅이,

“소인이 멀리 내다보는 지견이 없는데, 어찌 선견지명이 있겠습니까? 다만 세상에 소위 무사라고 하는 자들 중에는 재상의 집을 찾아가 출세할 것을 구하지 않는 이 없지만, 그것은 여진여퇴(旅進旅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심기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사들이) 오면 불려서 잘 대접하고 온갖 말을 다하니 문관(門館)에 머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사들의 무리가 매우 많아 용맹을 자랑하고 기이한 재주를 과시하며 스스로 팔아 쓰여지기를 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난잡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재화(災禍)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속에서 역적모의를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렵 알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끝이 좋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보기에, 갑인년(甲寅年 1674) 이후 재상으로서 화를 입은 자는 무사들이 그 집안에 가득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니 손태웅의 말

은 세상을 경계할 만하다 하겠다.<sup>54)</sup>

손태웅은 아전 출신으로 몰려나 민간에 묻혀 살고 있는 존재다. 정재륜은 손태웅이 심기원을 모시던 아전이었던 말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이 손태웅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었다. 손태웅은 그 이야기에서 정치적 일상의 핵심을 밝힌다. 높은 벼슬아치들이 무사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 패망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손태웅이 경험을 통하여 확보한 교훈이다. 정재륜은 경험에서 우려난 손태웅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견주어 본다. 손태웅의 말이 세상을 경계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세상을 경계한다는 것은 특히 사대부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경계이다. 아전 출신이면서 민간에 묻혀 사는 사람이 사대부의 삶을 이끌어줄 교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훈 생성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야기다. 이야기가 신분의 경계와 기존 관계를 허물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관건은 이야기의 감동과 설득력일 뿐이다.

중인이나 천민들의 경험에서 우려난 교훈을 정재륜이 기꺼이 청취하고 기록한 것은 일상 경험을 중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공사견문록』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여러 편이다. <유반궁노비(有泮宮奴婢)>(후집 168화)의 늙은 계집종은 사대부들이 규범의 이상형이라 보는 하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조막동천예야(趙莫同賤隸也)>(후집 158)에서 관노 조막동은 사대부가 먼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며 사대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윤후길천예야(尹厚吉賤隸也)>(후집 157화)에서 역시 관노인 윤후길은 자기의 실수를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자기의 실수 경험을 근간으로 하여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일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철칙을 제시한다. <인수우천(人雖愚賤)>(후집 172화)에서 서울 창기

53) 余於今上乙卯年間 往浴溫泉 秣馬村家 家主孫泰雄 年過八十矣 自言曾爲沈器遠陪吏 余問汝於器遠 未敗前 能知其必敗乎 泰雄曰 小人無遠識 安能有先見耶 但見世所謂武士者 無不干謁宰相之門 以求發身 而不過旅進旅退而已 器遠則不然 來則引接致款 辭意綢繆 故武士之留連門館 夜以繼日者 其類甚多 無不誇勇獻奇以自眩售 門庭之雜亂如此 其能無禍乎 其包藏逆謀 雖非人人之所可知 而其時識者 多知其不終矣 余見 甲寅以後 宰臣被禍者 多崇於武士盈門 則泰雄之言 可以警世矣(후집 139화)

53) 1644년 懷恩君 德仁을 추대하려는 반란을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이러(二麗) 역시 자기들 창기들의 비참한 말년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사람의 일생에서 마음씀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사대부를 향한 역관이나 아전, 서리들의 규범적 목소리는 더 강렬하다. 그들은 사대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사대부들과는 거리를 두고 그들의 언행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아전과 서리는 자신들의 일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대부 사회와 사대부 자신들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사대부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당당하게 전한 것이다.

특히 이런 이야기가 ‘임금 → 신하’, ‘사대부 → 천민’, ‘선조 → 후손’ 방향을 고수하는 기존 교훈담과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공사견문록』이 보여주는 대단히 독특한 면이라고 하겠다.

정재륜은 상하의 신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육적 일화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대부 신분의 그것들도 수용하였다. 그것은 한 가문 이야기관의 이야기가 가문의 경계를 넘어서 가문끼리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가능해졌다.<sup>55)</sup>

요컨대 『공사견문록』의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일상을 잘 꾸러가기 위한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일화의 서술형식은 그 경험을 담을 수 있게 하였다. 추상적 규범을 제시할 때도 교술적 진술로 일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거나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라는 식으로 진술함으로써 교육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준 것이다. 『삼강행실도』가 관념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일상의 행실을 찾은 결과라면, 『공사견문록』은 구체적 경험이 선행되고 그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면서 여러 신분의 일상에서 세세하게 필요한 한 삶의 지혜나 규범, 태도를 추출할 수 있었다. 『공사견문록』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화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정재륜의 특별한 관심이었다. 이야기는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일상적 경험을 담아 정재륜에게 전했고 정재륜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듣고 썼다. 그런 점에서 『공사견문록』에서는 일화의 형성 못지 않게 일화의 활용이 중시되었다고 하겠다.

## 6. 결론

이 글은 ‘일상’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정재륜의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을 분석함으로써, 조선 시대 사대부의 일상적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경험 중 특별한 것이 어떻게 일화로 정착되는가, 또 이렇게 형성된 일화가 사대부의 일상에서 재활용되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폈다.

부마로서 살아간 편찬자 정재륜은 각종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음으로써 간접 경험을 쌓았다. 그 이야기 경험이 일화를 형성하게 했고 또 활용되게 하였다.

먼저 『공사견문록』의 이야기관을 살폈다. 정씨 가문 이야기관은 여성 이야기관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성향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정치적 내용이 자손들을 위한 교훈을 형성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궁중 이야기관은 왕실 구성원이 입장을 변명하여주고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 이야기꾼들이 이야기 내용에 집착하는 성향도 강하다. 사대부 이야기관은 비교적 다양한 소재로써 사대부가 자기 일상을 꾸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뚜렷한 형식에 담아 일화로 만들고 거기에는 교훈향을 덧붙였다. 민간 이야기관에서는 특히 아전이나 서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대부 사회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사대부들에게 따끔한 조언을 주었다. 그들은 사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사대부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의 언행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 이야기관의 이야기들은 개별 경험을 생생하게 담으면서도 상황에 부합하는 교훈향을 당당하게 제시하였다.

이런 이야기관 이야기의 존재 양상을 분석하여 말하기와 듣기, 쓰기가 전개되고 통합되는 양상을 살폈다. 말하기는 이야기꾼의 경우를 통하여 해명하였다. 특히 정치적 격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할 때 집착이 강했다.

듣기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즐기기 위해 소극적으로 듣는가, 아니면 은밀한 진술을 밝혀내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듣는가 등으로 나뉘지는데, 『공사견문록』은 후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편찬자 정재륜은 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진지하게 들었다.

55) <국구연흥김공(國舅延興金公)>(전집 74화), <이상국완(李相國完)>(후집 24화)

또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렇게 확인된 신빙성을 바탕으로 하여 교훈을 추출하려 하였다.

정재륜은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기록을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변형시켰고 거기다 나름대로의 감상과 생각을 덧붙였다. 적극적인 쓰기를 한 것이다. 일화를 중심에 둔 말하기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글쓰기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쓰기에서는 기본구조를 설정하고, 일화의 결합에 의하여 의미를 보편화하는 방법을 구사했다. 한 일화가 다른 일화를 포섭하게 하는 메타적 쓰기도 시도했다. 가문이나 왕실에서 메타적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메타적 교육 방식이 메타적 글쓰기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전개과정은 일화가 교육적으로 확장 활용되어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공사견문록』은 궁극적으로 일상을 잘 꾸러가기 위한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일화가 그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추상적 규범을 제시할 때도 교술적 진술로 일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거나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라는 식으로 진술함으로써 교육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었다. 『삼강행실도』가 관념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일상의 행실을 찾은 결과라면, 『공사견문록』은 구체적 경험이 선행되고 그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면서 여러 신분의 일상에서 필요한 한 삶의 지혜나 규범, 태도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공사견문록』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화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정재륜의 특별한 관심이었다. 이야기는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일상적 경험을 담아 정재륜에게 전했고 정재륜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듣고 썼다. 그런 점에서 『공사견문록』은 일화의 형성 못지않게 일화의 활용 쪽을 중시하였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일상의 모든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 기억하고 그 기억 내용을 일화로 만들어 교육 제재로 활용했던 선인들의 삶의 진지함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 속에 일상이 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듣고 쓰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일상이었던 셈이다.

사대부 사회에서 이야기 하기와 듣기, 쓰기가 그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추상적 원칙이나 당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경험, 나아가 이 나라의 역사까지도 활용한 ‘교훈의 생성’ 방식이 교육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말하기, 듣기, 쓰기 통합 교육의 한 대안을 여기서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 참고문헌

- KoreaA2Z.com 『조선왕조실록』  
 KoreaA2Z.com 『공사견문록』  
 서대석 외,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정재륜, 『동평위 공사문견록』, 강주진 역, 양영각, 1985.  
 \_\_\_\_\_, 『公私見聞錄』, 『稗林』, 영남대 도서관본
- 박재환 외 편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2.  
 신중환, 「한국소설의 일상성」, 『동양학』 3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이강욱, 『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  
 \_\_\_\_\_, 「조선시대 일화의 유형과 그 서술원리」, 『한국학보』 99집, 일지사, 2000여  
 름, 76-107면.  
 \_\_\_\_\_, 「사대부의 삶과 이야기 문화」,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53-75면

## The Formation of Anecdotes from the Everyday Life Experience and Application of Them

- on the *Gongsagyemmunrok*(公私見聞錄) of Jeong Jae-ryun(鄭載崙)

Lee, Kangok

This paper investigated *Gongsagyemmunrok*(公私見聞錄) being aware of the concept of the everyday life experience. This paper explained how the Sadaebu(士大夫) made their everyday life experience, and how they transformed their experiences into anecdotes. And this paper also explained the methods by which the Sadaebu used the anecdotes in the ordinary life.

The editor Jeong Jae-ryun(鄭載崙), who was son-in-law of the king, Hyojong(孝宗), could't have the opportunities to make any personal experience. So he made indirect experience by active listening of various kinds of stories from other peoples. The experiences of listening made him possible to write anecdotes and utilize them.

This paper analysed the storytelling scene of *Gongsagyemmunrok*. The storytelling scene of Jeong family's had strong inclination toward politics by rejecting women storytellers. The storyteller of Jeong family's might think that political contents were useful for making lessons. The storytelling scene of palace had the inclination to compensate for the palace members and show their moral superiority. The storytelling scene of Sadaebu showed their everyday lives with diverse anecdotes. The storytelling scene of peoples indicated the problems of Sadaebu society and gave them acute advices by the voice of Ajeon(衙前) and Seori(胥吏). The storytelling scene of peoples delivered the ordinary experiences vividly, and took out serious lessons from them.

This article also studied the aspects that speaking, hearing and writing were integrated at the storytelling scenes. The speaker attached to what he spoke when the topics were politic events. In *Gongsagyemmunrok*, the active hearing surpassed the

passive hearing. Recording the stories of the storytelling scene, the editor Jeong Jae-ryun was considerate of the reliability of the contents of the stories seriously.

Jeong Jae-ryun modified the stories which he heard, and to them he attached his feeling and thought. So he was active recorder or writer also. He had model structure of writing. Unifying anecdotes, he made universal lessons from them. He also tried meta-writing, where one anecdote contained another anecdotes. The meta-writing rooted in the meta-education. In othe words, the meta-education transformed into the meta-writing.

Jeong Jae-ryun wrote *Gongsagyemmunrok* to produce the principles for good ordinary life. In that sense, it can be said that *Gongsagyemmunrok* based on the experiences of everyday.

This paper found the sincerity and wisdom of our ancestors, who memorized the ordinary experiences and applied it as the materials for education.

Keyword: anecdote. everyday life experience. *Gongsagyemmunrok*(公私見聞錄).

Jeong Jae-ryun(鄭載崙). Sadaebu(士大夫). active listening. storytelling scene. writing. model structure. meta-writing. meta-education.

접수일자 : 2007. 4. 10 심사기간 : 2007.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7. 5. 20
--